

분묘자료를 통해 본 전북 동부지역 역학관계

전상학*

목 차

- | | |
|-----------------------|------------|
| 1. 머리말 | 5. 맷음말 |
| 2. 권역설정 | 참고문헌 |
| 3. 분묘자료 | <Abstract> |
| 4. 분묘자료를 통해 본 전북 동부지역 | |

국문초록

전북 동부지역의 삼국시대 분묘자료를 수계별로 검토하여, 가야와 백제 그리고 신라의 진출과정을 살펴보았다.

가야 분묘자료는 40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금강 수계권의 장수지역과 남강 수계권의 운봉고원에서 확인된다. 장수지역과 운봉고원 가야 세력은 6세기 전반까지 대규모의 고총을 조영하며 발전하였다. 섬진강 유역에서 조사된 가야계 석곽묘는 장수지역 또는 운봉고원에 자리한 가야와 관련된 것으로 이를 세력의 일시적인 진출이나 섬진강 유역 재지세력과의 교류 등을 통해 나타난 것이다.

백제 고분은 북쪽의 금강 수계권과 남쪽의 섬진강 수계권인 남원지역에서 주로 확인되었다. 금강 상류인 용담댐 일원에서 백제·가야·신라 분묘자료가 확인되는 데, 늦어도 6세기 전반부터는 금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장수지역은 6세기 전반부터 가야고분에 백제토기 부장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삼봉리고분군에서 횡혈식석실묘가 확인되어 일시적이지만 백제의 진출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운봉고원의 행정리고분군에서 5세기 전반에 해당되는 석곽묘가 조사되었

*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학예연구실장, E-mail: archaeology1@hanmail.net

으나 연속성은 보이지 않으며, 이후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에서 백제의 영향을 받은 횡혈식석실분이 확인되었다. 섬진강 중상류지역인 남원 사석리고분군과 초촌리 고분군에서 5세기 후반에 해당하는 횡혈식석실분이 확인되었다. 이중 초촌리고분군은 섬진강 유역에서 확인된 최대 규모의 백제 고분군으로 응진기 이후 백제의 지방거점에 조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신라 고분은 금강수계권의 북쪽인 무주와 진안지역과 남강 수계권인 운봉고원에서 확인되었다. 전북 동부지역 고분에 신라토기가 유입되는 시기는 5세기 전반으로 신라의 직접적인 진출이 아닌 현지 세력과의 교류로 나타난다. 5세기 후반 들어와 대차리고분군을 비롯한 신라 고분군이 조영되며, 장수지역은 6세기 후반 이후에 신라의 권역에 포함된 것으로 보여진다. 남강 수계권인 운봉고원의 봉대리 고분군에서 가야와 신라 토기가 혼재되어 출토되었으며, 본격적인 신라 고분의 조영은 6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시작된다. 가야세력의 중심고분군인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에 석실이 들어서고 고총 축조가 중단되는 시점은 대략 6세기 2/4분기 이후로 가야세력의 소멸과 백제와 신라의 각축장이 되는 일면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섬진강 수계권에서 신라 고분은 7세기 전후한 시기로 편년되는 남원 월평리 수월 유적이 있는데, 신라의 서쪽 진출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진다.

주제어 : 삼국, 분묘자료, 고분, 백제, 신라, 가야, 전북 동부지역

1. 머리말

신라가 진출하기 전에는 백제의 영역으로만 알려져 있던 전북 동부지역은 고고자료의 증가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한 정치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고, 백두대간의 서쪽의 고총고분군인 장수 동촌리고분군은 국가사적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전북 동부지역의 가야고분 가운데 최대 규모를 보이는 금강 수계권의 장수 삼봉리·동촌리, 남강 수계권의 남원 월산리·두락리에서 조사된 가야계 고총은 규모와 출토된 위세품으로 보아 국가 단계의 정치체가 존재하였던 것을 증명하고 있다(전상학 2018).

최근에는 금강 상류지역인 무주 대차리고분군·당산리유적에서 신라 고분이 발굴조사되었으며, 장수 침령산성과 인접한 춘송리고분군에서 봉토가 온전한 상태로 횡구식석실이 조사되어 학계에 큰 관심을 끌었다.

이글에서는 그간 전북 동부지역에서 발굴조사 된 삼국시대 분묘자료를 수계

별로 구분하여 기준 연구성과를 토대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삼국시대 가야와 백제 그리고 신라 세력의 역학관계를 시·공간적으로 추론해 보았다.

2. 권역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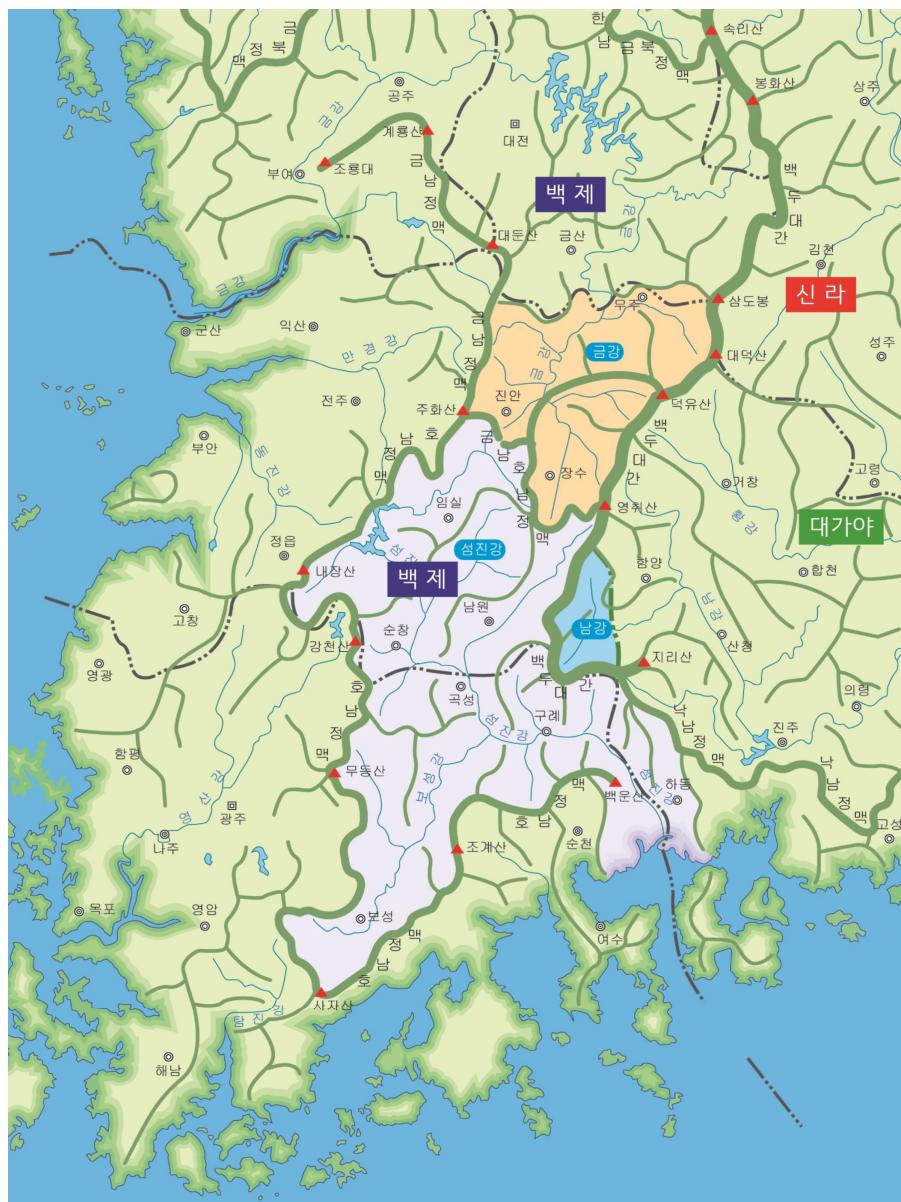
전북특별자치도의 동부지역은 동쪽에 백두대간과 서쪽에 호남정맥이 주변을 마치 산성과 같이 감싸고 있으며, 지형상으로 산악지대 임에도 불구하고 운봉고원, 진안고원(장수·장계분지)에는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충적지가 발달해 있다. 또한, 백두대간과 호남정맥에서 뻗어 내린 산줄기는 자연적으로 지역권을 달리하며, 이들 산줄기에서 시작된 하천은 금강·섬진강·남강 수계권으로 구분된다(전상학 2018).

본고에서는 전북의 동부지역을 도 1)과 같이 수계별로 구분하여 조사 보고된 삼국시대 분묘자료를 검토하였다. 자료의 검토는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시·공간적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지표조사로 보고된 일부 유적을 포함하였다.

금강 수계권은 행정구역 상으로 장수군·진안군·무주군이 포함되며, '진안고원'이라 불리운다. 진안고원은 백두대간과 금남정맥, 금남호남정맥 사이에 형성된 해발 400m 내외의 산악지대이며, 호남의 지붕이라 불리는 곳이다. 충남 금산까지는 장애물이 없어 하나의 권역으로 구분이 가능하다(전상학 2013).

섬진강 수계권은 행정구역 상으로 진안군 남부지역·임실군·장수군 산서면과 변암면·순창군·남원시 서부지역이 포함된다. 섬진강의 상류와 중류지역으로, 본류와 지류를 따라 충적지와 구릉이 발달되어 있어 동일 지역권을 이루고 있다.

남강 수계권은 남원시의 동부지역으로 운봉읍·아영면·인월면 등이 포함된다. 이 지역은 '운봉고원'이라 불리우며, 백두대간의 동쪽에 위치하고 해발고도는 400m 내외이다. 남강의 상류지역인 풍천 주변으로 충적지와 구릉이 발달되어 있다. 이 지역은 지형이나 문화가 경남의 서부지역(함양, 산청)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전상학 2018).



〈도 1〉 호남 동부지역 지형도(곽장근 1999)

3. 분묘자료

전북특별자치도의 동부지역은 선사시대 아래로 줄곧 지정학적인 이점을 살려

교통의 중심지이자 전략상 요충지를 이루었다. 특히, 삼국시대에는 백제와 가야, 신라가 진안고원과 운봉고원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각축전을 펼쳐 백제와 가야, 신라의 유적과 유물이 공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전상학 2018).

이 지역은 도 1)과 같이 금강·남강·섬진강 수계권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수계별로 여러 세력들의 복합적인 양상을 분묘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1) 금강

금강 수계권은 진안고원으로 불리며, 장수·무주·진안지역으로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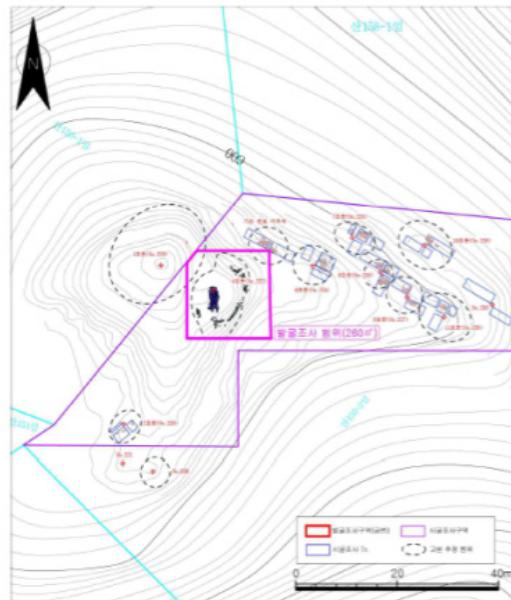
장수지역[장수·장계분지]은 금강의 최상류지역으로 5세기 전후한 시기부터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한 세력이 확인되며, 장계분지를 중심으로 가야 세력의 고총이 지속적으로 축조된다. 삼고리고분군에서는 목곽묘 단계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발형기대와 고배 등이 확인되어 장수지역 가야문화의 시작점을 한 단계 앞당기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박성배 2021). 장수지역의 중심고분군인 장수 삼봉리고분군과 동촌리고분군의 고총 축조가 중단되는 시기는 대략 6세기 2/4분기 정도이다.

백제 관련 분묘자료는 장계분지에 무농리고분군과 장수분지에 동촌리 백제 고분군이 있으나 지표조사를 통해 개략적인 정황만이 보고되었다. 삼고리고분군과 동촌리고분군에서 6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백제토기의 부장 예가 확인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삼봉리고분군 5-2호분 주변에서 횡혈식 석실이 조사되었다(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4).

신라 분묘자료는 최근 발굴조사 된 춘송리고분군에서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인접한 침령산성과 관련성이 높은 고분군으로 4호분은 봉토 규모가 18.2m, 너비 12.0m, 높이 4.1m 내외의 대형분으로 매장시설은 횡구식석실로 파악되었다. 유물은 대부장경호·단각고배·개·발형토기·완·병 등 토기류와 관고리·미상 철기 등이 출토되었다. 또한, 장송의례에 활용된 유물로 추정되는 훈(壠, 또는 土鈴) 1점이 출토되었다. 유구의 속성과 유물 등의 양상으로 보아 해 6세기 후반을 전후한 시기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24).



〈사진 1〉 삼고리고분군 목곽묘출토(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0)



〈도 2〉 춘송리고분군 현황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24)

무주지역은 현내리·대차리·당산리유적에서 신라고분이 확인되었는데, 5세기 후반 이후 신라의 진출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전북지방에서 처음 직접적으로 신라의 진출을 보여주는 유적은 무주 대차리고분군이다(최병현 2022). 최근 조사된 당산리유적은 금강의 남안에 자리하며, 신라계통 목곽묘 1기와 석곽묘 11기가 확인되었다. 부장된 신라토기는 5세기 말~6세기 전반에 해당된다(문화유산마을 2023).



〈사진 2〉 무주 대차리고분군(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20)

진안지역은 백제·가야·신라고분이 모두 확인되는데, 이러한 양상은 황산리고분군의 석곽묘에 부장된 토기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대가야계 토기(도면 3 : 1~8)는 저평통형기대, 일단투창고배, 유개장경호가 있으며, 나지구의 17호 석곽묘의 일단투창유개고배와 저평통형기대는 지산동 44호, 백천리 1호 출토품과 비교하여 5세기 4/4분기의 이른 시기로 비정되었다(곽장근 2004). 신라토기는 대부분장경호 2점과 파수부잔이 있으며, 소가야계 토기로 일단장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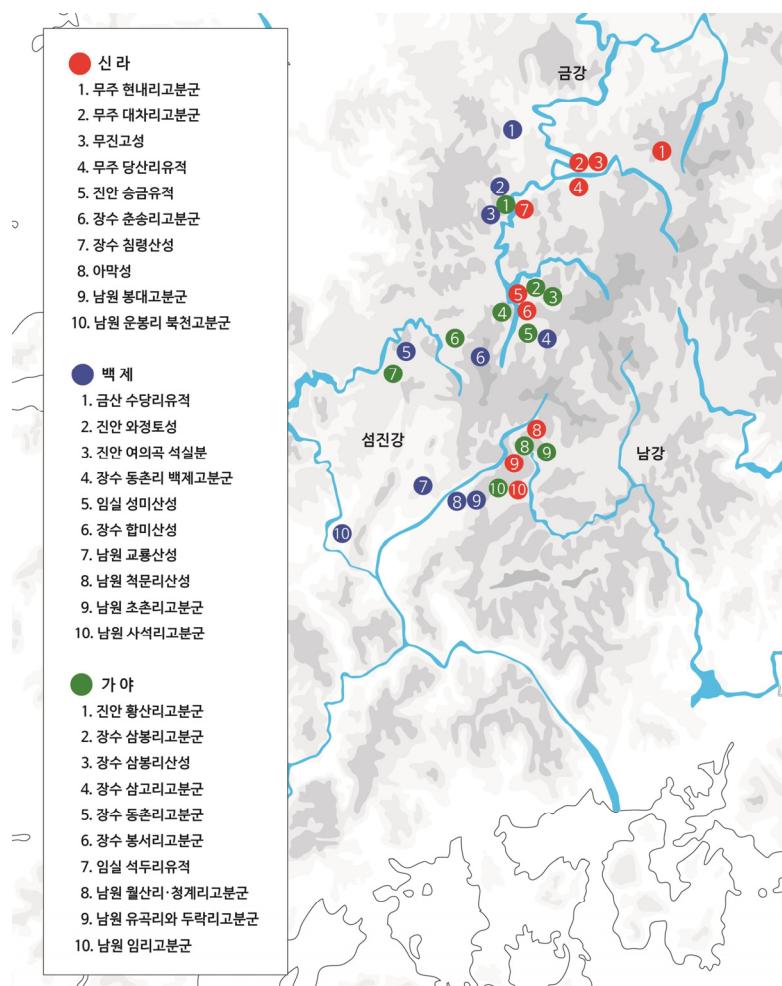
〈도 3〉 진안 황산리고분군(대가야·소가야·신라)

(1 : 17호, 2·3·5 : 14호, 4·6·12 : 6호, 7 : 16호, 8 : 13호, 10 : 11호, 11 : 1호, 13 : 14호)

투창 고배가 출토되었다(도면 3 : 10~13). 이처럼 5세기 후반대에 이르면 진안지역에는 백제와 신라 그리고 가야 세력이 금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삼락리 승금유적에서는 신라계 횡구식석곽(전북대학교박물관 2001)이 조사되었는데,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까지 고분 축조가 이어진 신라 후기고분군(최병현 2022)이다.

진안지역과 지리적으로 장애물이 없어 금산지역이 포함되는데, 금산지역의 삼국시대 분묘유적으로는 수당리유적[백제], 장대리고분군[신라], 창평리유적[가야] 등이 있다.



〈도 4〉 전북 동부지역 삼국시대 고분과 산성

〈표 1〉 전북 동부지역 삼국시대 주요 고분

| | 유적명 | 구분 | | 봉분 (주구) | 매장시설 | 비고 |
|----|-------------------|----|-----|------------|-----------------------|-------------|
| | | 계통 | 수계 | | | |
| 1 | 장수 침곡리 마무산유적 | 마한 | 금강 | - | 토광묘 | 4C |
| 2 | 장수 노하리고분군 | 가야 | 금강 | 주구 | 수혈식석곽묘 | 5C 전 ~ 5C 후 |
| 3 | 장수 삼고리고분군 | 가야 | 금강 | ○ | 목곽묘, 토광묘, 수혈식석곽묘 | 5C 전 ~ 6C 전 |
| 4 | 장수 삼봉리고분군 | 가야 | 금강 | ○ | 토광묘, 수혈식석곽묘 횡혈식석실묘 | 5C 중 ~ 6C 전 |
| 5 | 진안 황산리고분군 | 가야 | 금강 | - | 수혈식석곽묘 | 5C 후 ~ 6C 전 |
| 6 | 장수 동촌리고분군 | 가야 | 금강 | ○ (주구) | 수혈식석곽묘 | 5C 중 ~ 6C 전 |
| 7 | 남원 청계리고분군 | 가야 | 금강 | ○ (주구) | 수혈식석곽묘 | 5C 전 ~ 5C 중 |
| 8 | 남원 월산리고분군 | 가야 | 남강 | ○ | 수혈식석곽묘 | 5C 전 ~ 5C 후 |
| 9 |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 가야 | 남강 | ○ (주구) | 수혈식석곽묘 횡혈식석실묘 | 5C 중 ~ 6C 전 |
| 10 | 남원 임리고분군 | 가야 | 남강 | ○ | 수혈식석곽묘 횡구식석곽묘 | 6C 전 |
| 11 | 임실 석두리유적 | 가야 | 섬진강 | - | 수혈식석곽묘 | 6C 전 |
| 12 | 장수 봉서리고분군 | 가야 | 섬진강 | - | 수혈식석곽묘 | 5C 후 |
| 13 | 금산 수당리유적 | 백제 | 금강 | - | 석실묘, 석파묘 | 5C 전 ~ 5C 후 |
| 14 | 진안 여의곡석실분 | 백제 | 금강 | - | 횡혈식석실 | 6C 전 |
| 15 | 장수 동촌리 백제고분군 | 백제 | 금강 | - | 석실묘 | ? |
| 16 | 장수 무농리고분군 | 백제 | 금강 | - | 석실묘 | ? |
| 17 | 임실 구고리고분군 | 백제 | 섬진강 | - | 석실묘 | 6C 전 |
| 18 | 남원 초촌리고분군 | 백제 | 섬진강 | ○ | 횡혈식석실 횡구식석곽 | 5C 후 ~ 6C 후 |
| 19 | 남원 사석리고분군 | 백제 | 섬진강 | ○ (주구) | 횡혈식석실 | 5C 후 ~ 6C 전 |
| 20 | 금산 장대리고분군 | 신라 | 금강 | - | 횡구식석실 | 6C 중 |
| 21 | 무주 현내리고분군 | 신라 | 금강 | - | ? | 6C 전 ~ 6C 중 |
| 22 | 무주 당산리유적 | 신라 | 금강 | - | 토광묘 횡구식석곽 | 5C 후 ~ 6C 전 |
| 23 | 무주 대차리고분군 | 신라 | 금강 | - | 수혈식석곽 횡구식석곽 | 5C 후 ~ 6C 중 |
| 24 | 진안 승금유적 | 신라 | 금강 | - | 횡구식석곽 | 6C 중 |
| 25 | 장수 춘송리고분군 | 신라 | 금강 | ○ | 횡구식석실 | 6C 후 |
| 26 | 남원 봉대고분군 | 신라 | 남강 | - | 횡구식석곽 | 6C 중 |
| 27 | 남원 북천리고분군 | 신라 | 남강 | | 횡구식석곽 횡구식석실 | 6C 후 |

2) 남강

남강 수계권은 운봉고원¹⁾으로 불리며, 남원시의 동부지역인 운봉읍·아영면·인월면이 해당된다. 남강의 상류지역에는 5세기를 전후한 시기부터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한 세력이 확인된다. 중심고분군인 청계리·월산리·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에 고총이 지속적으로 조영되며, 대략 6세기 2/4분기에 고총의 축조는 중단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36호분은 매장시설이 횡혈식석실로 연구자에 따라 계통을 백제, 신라, 대가야로 보고 있다.

청계리고분군(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23)과 광평유적(전북문화재연구원 2012)에서 목곽묘가 조사되었으며, 부장된 토기는 대체로 5세기 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아라가야, 소가야, 백제와 관련성이 보여진다. 청계리고분군(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21)은 5세기 2/4분기 함안·합천·부산지역 등 남강수계 가야세력과 연관성이 확인되다가 5세기 3/4분기에는 고령, 고성의 소가야·대가야 영향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가야고분은 봉토의 평면형태가 타원형이고, 주위에 호석은 시설되지 않았다. 봉토와 매장시설의 축조방법, 주구 등에서 마한의 분구묘 전통이 남아있다. 매장주체부는 수혈식 석곽묘가 대부분인데, 임리 고분군에서 횡구식 석곽묘가 조사된 바가 있으며 남원 두락리 36호분의 경우 횡혈식 석실이다. 봉토 내 매장시설의 배치는 단곽식이 대부분이며,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32호분을 제외하고 모두 단곽식이다. 32호분은 주석곽과 부곽이 ‘11’자 형태이나 부곽은 매장용이 아닌 부장품 매납이 주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가야고분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순장 유형이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전상학 2020)²⁾.

백제와 관련된 분묘자료는 행정리고분군과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36호분이 있으나, 가야와 신라 관련자료에 비해 빈도수가 적다. 행정리고분군의 수혈식석곽묘에 부장된 광구호는 백제와 관련성이 높으며,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36호분의 경우 계통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백제의 영향을 받아 축조된 것으로 보여진다³⁾.

1) 백두대간의 동쪽인 운봉고원에는 신라의 모산현(母山縣)이 설치되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운봉현으로 개칭되어 천령군[함양]의 속현이 되기도 하였으며, 고려 초에 다시 남원부로 이속되었다.

2) 주곽과 함께 부곽 또는 순장곽이 축조되는 묘제는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영향을 받은 대가야 묘제로 분류(하승철 2019)하기도 한다.

3) 이 고분의 계통과 관련된 연구(김낙중 2024)가 이루어진 바가 있다. 최근에는 산청 생초 M32분(극동문화재연구원 2024)이 조사되어 백제의 서부경남지역 진출 등과 관련

신라와 관련된 분묘자료는 남원 봉대고분군(호남문화재연구원 2013)과 운봉 북천리고분군(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4)이 있다. 봉대고분군 2호 석곽묘는 횡구식으로 보여지는데, 가야토기와 신라토기와 혼재되어 출토되었다. 출토맥락을 통해 고분의 재사용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운봉 북천리고분군 3호분[횡구식 석곽]과 주변에서는 횡구식석실묘가 조사되었다. 봉대고분군과 운봉 북천리고분군에 부장된 신라토기는 6세기 중반~후반으로 편년된다(유수빈 2022, 최병현 2022).



〈사진 3〉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27·28호분
(조선문화유산연구원 2024)



〈사진 4〉 봉대리고분군 출토
(호남문화재연구원 2013)

된 추가적인 논의(이동희 2025)가 이루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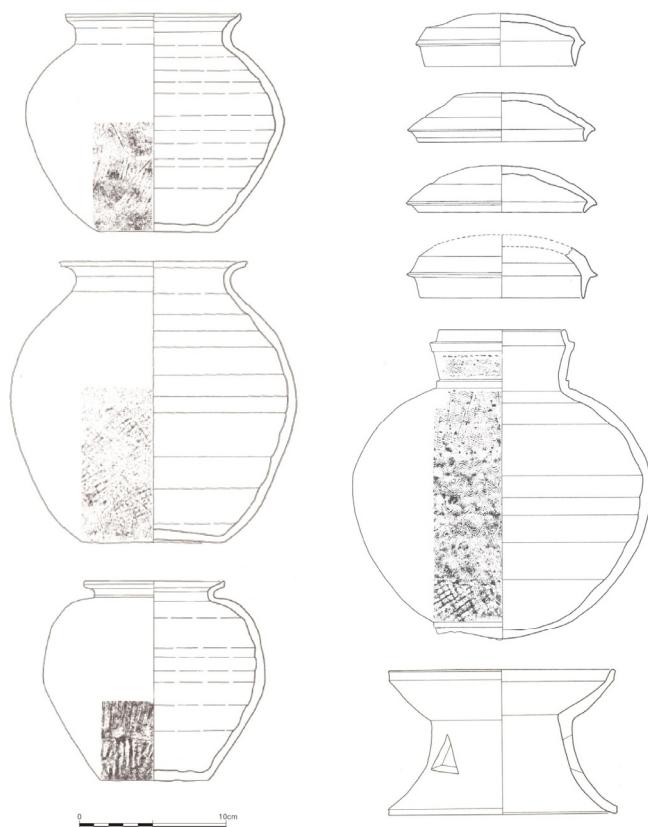
3) 섬진강

섬진강 수계권의 중상류는 남원시 서부지역과 장수군 번암면·산서면, 임실, 순창 등이 해당된다. 북쪽으로 금남호남정맥, 동쪽으로 백두대간, 서쪽과 남쪽은 호남정맥이 경계를 이루고, 하천 주변으로 충적평야가 발달되어 있다. 이 지역은 삼국시대에는 동서의 접경지대에 자리하고 있어 백제가 대가야를 비롯한 가야세력과 영산강유역의 전용 옹관묘 조영세력, 왜 등이 교류 및 교역하는데 가교역할을 담당해 문화상으로 접이지대를 이루었다(곽장근 2008).

가야 관련 분묘자료는 남원 고죽동유적(윤덕향 1994), 장수 봉서리고분군(전북대학교박물관 2001), 임실 석두리유적(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2) 등이 있다. 중대형 고총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중·소형의 수혈식 석곽묘만이 확인되고 있다. 석곽묘 내부에서 출토된 가야계 토기들은 대부분 현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진안고원과 운봉고원에서 제작된 것으로 분류되며, 공반되어 출토되는 기종은 대부분 백제계이다(전상학 2015). 대체적으로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의 한정된 시기에 해당한다.

신라 관련 분묘자료는 남원 월평리 수월유적 석곽묘(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0)가 있는데, 7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통일 직전 신라가 좀 더 서쪽으로 진출한 것을 의미한다(최병현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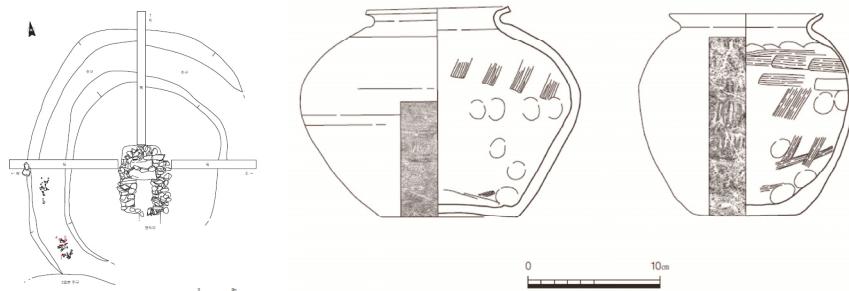
백제 관련 분묘자료는 남원 초촌리고분군(전영래 1981 ; 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4) · 사석리고분군(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4 ; 조선문화유산연구원 2022), 임실 금성리고분군(전영래 1974) · 구고리석실분(국립전주박물관 2011), 순창 내월 유적(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구미리유적(호남문화재연구원 2013) 등이 있다. 매장시설은 횡혈식석실, 횡구식석곽, 수혈식석곽 등이 확인되었다. 섬진강유역에 조사된 횡혈식석실분의 천장형태는 네벽조임이 가장 이른 형태로 보여지며, 초촌리 M21·43호분과 사석리 3호분이 해당된다(전상학 2015). 네벽조임식은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중반까지의 시기에 축조되는데, 백제의 도읍지역과는 거리를 둔 지방에서 주로 발견된다(이남석 1995).



〈도 5〉 남원 고죽동유적 4호 석곽묘 출토



〈사진 5〉 남원 월평리 수월유적 석곽묘 출토



〈도 6〉 남원 사석리고분군 3호분

4. 분묘자료를 통해 본 전북 동부지역

호남 동부지역은 삼국시대에 백제 문화 뿐만 아니라 가야, 신라 문화도 확인되어 여러 나라의 문화가 중첩된 점이지대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곽장근 1999). 전북의 동부지역은 백제, 신라, 가야라는 커다란 세력이 부딪히기도 하고 교류하기도 하면서 형성한 문화가 복합적인 양상을 드러내는 곳이다(김낙중 2014). 대체로 5세기대에 가야 문화, 6세기 전반에 백제 문화, 6세기 중반 이후에 신라 문화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을 아울러서 하나의 문화 성격으로 규정하기 힘든 상황을 보여준다(김재홍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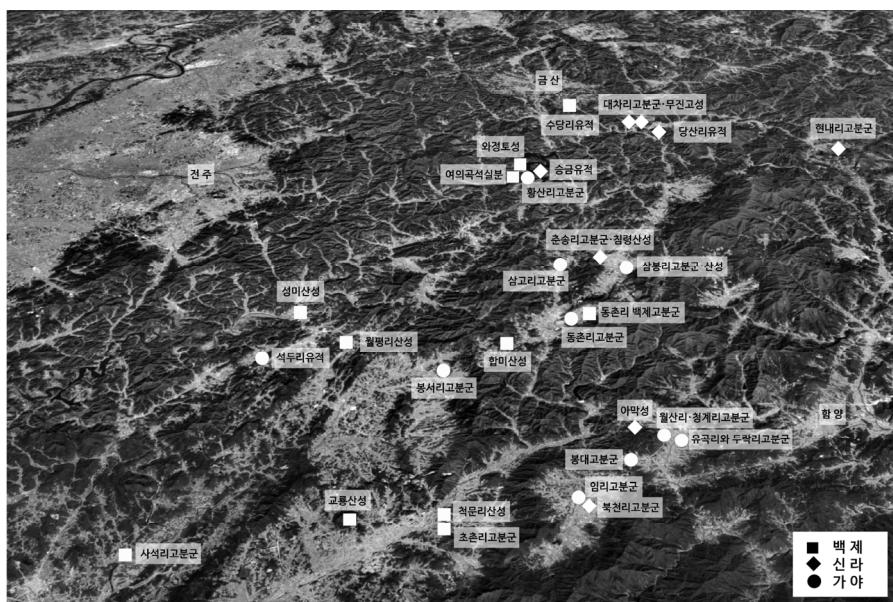
전북 동부지역의 삼국시대 분묘자료를 수계별로 검토하여, 가야와 백제 그리고 신라의 진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지역에 가야문화를 기반으로 한 정치체와 관련된 분묘자료가 확인되기 이전의 현지세력은 마한으로, 장수 침곡리마무산유적 토광묘(군산대학교박물관 2008) · 침곡리유적 주거지(군산대학교박물관 2006),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주거지(조선문화유산연구원 2023), 섬진강 수계권의 ‘말무덤’과 주거지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 가야

가야 분묘자료는 5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금강 수계권의 장수지역과 남강 수계권의 운봉고원에서 확인된다. 이 시기에 백제는 근초고왕 대에 이르러 중앙 집권화를 완비하고 대외적인 팽창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는 전남 서해안과 경남지역에 위치한 기존의 마한 및 가야제국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김태식 1997). 이후 400년 고구려 광개토왕의 남정을 기점으로 백

제, 신라, 가야, 마한 등 제 세력들의 재편과정이 이루어지면서 각자의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한다(전상학 2017). 가야의 경우 토기에 있어 ‘범영남양식’이 4세기 4/4분기에 지역양식의 복합을 이루는 전환기 변동이 이루어짐으로써 양식복합기가 전개되고 이후 각지의 토기양식이 성립된다(박승규 2015). 전북 동부지역에 가야의 시작은 이러한 역사적 정황과 고고학적 현상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전상학 2018).

고령 지산동 서쪽에서 가야계 고총은 대가야양식 토기가 주종을 이루는 단계에 접어들면 가야계 고총이 자취를 감추든지 그 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이희준 2008). 고총의 존재여부는 그곳에 지역적인 기반을 둔 세력집단의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동시에 고총의 규모와 기수는 조영집단의 존속기간이나 피장자의 사회적인 위상을 반영하는 요소로 해석된다(이희준 1997 ; 김용성 1998). 장수지역 가야세력이 조영한 고총은 규모나 분포범위에 있어 백두대간 서쪽에서 확인된 가야계 고총 중 최대를 이루고 있으며, 발굴 조사를 통해 이들 고총은 6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축조가 이루어졌다. 운봉고원의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은 봉토의 규모와 매장주체부가 축소되지 않고 그 이전 단계의 발전속도를 멈추지 않고 더욱 커졌으며, 40여 기 이상의 가야계 고총이 한 곳에 무리를 이루고 있어 운봉지역 가야세력 또



〈도 7〉 전북 동부지역 삼국시대 주요 고분과 산성

한 상당 기간동안 존속하였음을 암시해 주었다.

섬진강유역에서 조사된 가야계 석곽묘들은 종래 대가야의 진출과 관련되어 해석되어져 왔으나 최근 조사성과를 토대로 진안고원과 운봉고원에 자리한 가야와 관련된 것으로 이를 세력의 일시적인 진출이나 섬진강유역 재지세력과의 교류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전상학 2015).

2) 백제

백제 고분은 북쪽의 금강수계권과 남쪽의 섬진강수계권인 남원지역에서 주로 확인되었다. 석실분은 백제의 진출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고고학 자료이면서 재지수장충의 수용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백제계 석실은 주로 교통로의 길목과 백제 산성 또는 치소에 관련된 지역에 자리한다(이동희 2008). 금강 상류인 용담댐 일원에서 백제·가야·신라 분묘자료가 확인되는데, 늦어도 6세기 전반부터는 금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장수지역은 백제의 백이[해]군⁴⁾과 우평현이 설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백제 분묘자료는 지표조사를 통해 보고된 장계면 무농리고분군과 장수읍 동촌리 백제고분군이 있다. 6세기 전반부터 가야고분에 백제토기 부장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삼봉리고분군 5-2호분 주변에서 횡혈식석실묘가 확인되어 일시적이지만 백제의 진출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운봉고원의 행정리고분군에서 5세기 전반에 해당되는 석곽묘가 조사되었으나 연속성은 보이지 않으며, 이후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에서 백제의 영향을 받은 횡혈식석실분이 확인되었다.

웅진기에 접어들면 한성기의 금강 상류를 경유하던 간선교통로가 폐지되고 전주에서 호남정맥의 슬치를 거쳐 섬진강유역으로 진출하는 교동로가 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곽장근 2008). 섬진강 중상류지역인 남원 사석리고분군과 초촌리고분군에서 5세기 후반에 해당하는 횡혈식석실분이 확인되었다. 사석리고분군 3호분은 봉분 주위에 주구가 확인되었으며, 할석의 네벽조임의 천장형태인 횡혈식석실로 고분의 피장자와 축조세력이 백제화가 되어가는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초촌리고분군은 섬진강유역에서 확인된 최대 규모의 백제 고분군으로 웅진기 이후 백제의 지방거점에 조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삼국사기』, 「지리지」에 의하면, 백제 때 진안읍에는 난진아현(難珍阿縣), 용담면에는 물거현(勿居縣), 장수군 장계면에는 백이[해](伯伊[海])군, 장수읍 일원에는 우평현(雨坪縣)이 설치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전상학 2013).

3) 신라

신라 고분은 금강수계권의 북쪽인 무주와 진안지역과 남강수계권인 운봉고원에서 확인되었다. 전북 동부지역 고분에 신라토기가 유입되는 시기는 5세기 전반 ~ 5세기 중반으로 신라의 직접적인 진출이 아닌 문물교류의 산물로 판단되며(유수빈 2022), 5세기 후엽에 들어와 대차리고분군을 비롯한 신라 고분군이 조영된다(최병현 2022). 이 시기 신라의 진출은 김천에서 덕산령을 넘어 금강 상류인 남대천을 따라 무주 무풍면 - 설천면 - 무주읍-용담댐 와정토성 일원-금산으로 이어진다. 또한, 지형상 무주읍 · 적상면 일원과 안성면은 오두치를 사이에 두고 남쪽의 장수지역 가야 세력과의 자연 경계를 이룬다.

최근 조사된 춘송리고분군을 통해 장수지역은 6세기 후반 이후에는 신라의 권역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진다.

남강 수계권인 운봉고원의 봉대리고분군 석곽묘에서 가야와 신라 토기가 혼재되어 출토되었으며, 운봉 북천리고분군에서는 신라 횡구식석실묘가 확인되었다. 전자는 6세기 중반, 후자는 6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며, 이 지역에 본격적인 신라 고분의 조영은 6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시작된다. 가야세력의 중심 고분군인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에 횡혈식석실이 들어서고 고총 축조가 중단되는 시점은 대략 6세기 2/4분기 이후로 가야세력의 소멸과 백제와 신라의 각 축장이 되는 일면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섬진강 수계권에서 신라 고분은 7세기 전후한 시기로 편년되는 남원 월평리 수월유적이 있는데, 신라의 서쪽 진출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진다.

5. 맷음말

지금까지 전북 동부지역의 삼국시대 분묘자료를 통해 가야와 백제, 그리고 신라의 역학관계를 추정해 보았으며, 이를 통해 드러난 수계권 또는 지역에 따른 역학관계를 표 2)와 같이 정리하며 맷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그간 발굴 조사 된 분묘자료는 대부분 학술조사를 통해 일부만이 조사된 것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발굴조사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최근 전북 동부지역에서는 가야와 백제 뿐만 아니라 신라의 진출과정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증가 추세이다. 따라서, 지역별로 복합적 양상을 보이

는 고고자료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이를 밝혀나가도록 노력하겠다.

〈표 2〉 전북 동부지역 삼국시대 역학관계

| | | 4세기 | 5세기 | | | 6세기 | | | 7세기 | | |
|-----|-----|-----------|-----|-----|-----|--------------|-----|---|-----|---|---|
| | | | 전 | 중 | 후 | 전 | 중 | 후 | 전 | 중 | 후 |
| 금 강 | 무 주 | 마 한? | | ? | 가 야 | | | | 신 라 | | |
| | 장 수 | 마 한 | | | 가 야 | | 백제? | | 신 라 | | |
| | 진 안 | 마 한 | 백 제 | | 가 야 | 가야·백제· 신라 | | | 신 라 | | |
| 남 강 | 운 봉 | 마 한 | | | 가 야 | | | | 신 라 | | |
| 섬진강 | 남 원 | 마 한 · 백 제 | | 가 야 | | 백 제 | | | 신 라 | | |

논문접수일: 2025. 06. 16 / 심사개시일: 2025. 07. 29 / 게재확정일: 2025. 08. 21

참고문헌

- 곽장근, 1999, 『호남 동부지역 석곽묘 연구』, 서경문화사.
- _____, 2004, 「湖南 東部地域 加耶勢力과 그 成長過程」, 『湖南考古學報』 20, 湖南考古學會.
- _____, 2008, 「섬진강유역 교통로의 재편과정과 그 의미」, 『백제와섬진강』, 서경문화사, 183-232쪽.
- _____, 2010, 「전북동부지역 가야와 백제의 역학관계」, 『호남 동부지역의 가야와백제』, 제18회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71-112쪽.
- 김낙중, 2014, 「남원지역 고분군의 보존과 활용 방안」, 『가야와 백제, 그 조우의 땅 ‘남원’』, 호남고고학회.
- _____, 2024,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 36호분과 가야, 백제 및 신라」, 『한국고고학보』 2024(2), 한국고고학회, 283-311쪽.
- 김승옥, 2019, 「호남지역 마한과 백제, 그리고 가야의 상호관계」, 『호남고고학보』 63, 호남고고학회, 1-31쪽.
- 김재홍, 2012, 「전북 동부지역 백제, 가야, 신라의 지역 지배」, 『한국상고사학보』 78, 한국상고사학회, 113-134쪽.
- 김태식, 1997, 「백제의 가야지역 관계사: 교섭과 정복」, 『백제의 중앙과 지방』 5, 백제연구논총, 43-90쪽.
- 박성배, 2021, 「장수 삼고리고분군 출토 유물의 특징과 가치」, 『장수 삼고리고분군의 성격과 가치』, 후백제학회.
- 박승규, 2015, 「대가야토기의 생산체계와 유통」, 『대가야 문물의 생산과 유통』, 고령군 대가야박물관 · (재)영남문화재연구원, 11-52쪽.
- 유수빈, 2022, 「전북 동부지역 신라 진출 연구-신라토기를 중심으로-」, 군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 철, 1996, 「전북지방 묘제에 대한 소고」, 『호남고고학보』 3, 호남고고학회, 29-74쪽.
- 이남석, 1995, 『백제 석실분 연구』, 학연문화사.
- 이동희, 2008, 「섬진강 유역 고분」, 『백제와 섬진강』, 백제학회.
- _____, 2025, 「고고자료로 본 백제의 서부 경남지역 진출」, 『6~7세기 호남동부 지역 백제와 신라의 항쟁』, 제33회 호남고고학회 정기학술대회.
- 이희준, 2008, 「대가야토기 양식 확산 재론」, 『영남학』 13,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111-164쪽.

- 전상학, 2015, 「섬진강유역 고분의 성격」, 『섬진강유역의 고고학』, 호남고고학회.
- _____, 2018, 「전북지역 가야고분의 현황과 특징」, 『호남고고학보』 59, 호남고고학회, 46-63쪽.
- _____, 2019, 「토기를 통해 본 금강 상류지역 가야」, 『호남과 영남, 경계의 가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_____, 2020, 「고고자료와 문헌으로 본 상기문국」, 『전북학연구』 2,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 최병현, 2022, 「고고학으로 본 신라의 전북지방 진출과정」, 『전북학연구』 5,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 최완규, 2018, 「전북지역의 가야와 백제의 역동적 교류」, 『호남고고학보』 59, 호남고고학회, 4-24쪽.

보고서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21, 『남원 청계리 청계고분군』.
-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2024,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14호분 발굴조사 약보고서』.
-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2024, 『장수 춘송리고분군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 문화유산마을, 2023, 『무주 당산리(559-18번지 일원) 생태모험공원 조성사업부지 내 문화재 시·발굴조사 약보고서』, 무주군.
- (재)극동문화재연구원, 2024, 『산청 생초 고분군-M30·31·32호분-』.
-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2, 『임실 석두리유적』,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14, 『남원 운봉 북천리고분』, 문화재청·한국매장문화재협회.
-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 2023, 『남원 청계리고분군』.
- 전북대학교박물관, 2001, 『진안 용담댐 수몰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II』.
- 전북대학교박물관, 2021,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36호분』, 남원시.
-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12, 『남원 월산리 고분군』.
- 전영래, 1974, 「임실 금성리 석곽묘군」, 『전북유적조사보고』 3, 전라북도박물관.
- 전영래, 1981, 「남원, 초촌리고분군발굴조사보고서」, 『전북유적조사보고』 12, 한

국문화재보호협회 전북도지부.

-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14, 『남원 사석리고분군』.
-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0, 『남원 월평리 수월유적』.
-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2, 『장수 삼고리고분군 2차 발굴조사 변경(5차)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 (재)전주문화유산연구원, 2024, 『장수 삼봉리고분군(7차) 시·발굴조사 약식보고서』.
- (재)조선문화유산연구원, 2022, 『남원 사석리고분군-8호분-』.
- (재)조선문화유산연구원, 2024,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8호분-』.
- (재)조선문화유산연구원, 2023, 『남원 유곡리와 두락리고분군 정비사업부지 내 시·발굴조사 약식보고서』.
- 윤덕향, 1997, 『남원 고죽동유적』, 남원의료원.
- 호남문화재연구원, 2013, 『남원 봉대 고분군』.
-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순창 내월유적..』

<Abstract>

Epidemiology of the Eastern Region of North Jeolla Province through Tomb Data

Jeon, Sang-hak*

The tomb data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in the eastern par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ere reviewed by water system, and the process of Gaya, Baekje, and Silla's entry was examined.

Gaya tomb data are found in the Jangsu area of the Geumgang River and the Unbong Plateau in the Namgang River area from around 400 years ago. Until the first half of the 6th century, the Gaya forces in the Jangsu area and the Unbong Plateau developed by contrasting large-scale tombs.

The Gaya-gye stone-lined tombs Shrine surveyed in the Seomjingang River basin is related to Gaya located in the Jangsu area or Unbong Highlands, and appeared through temporary advancement of these forces or exchanges with local forces in the Seomjingang River basin.

Baekje tombs were mainly identified in the Namwon region, the water area of the Geumgang River in the north and the water area of the Seomjingang River in the south. Baekje, Gaya, and Silla tombs are found in the area of Yongdam Dam, the upper stream of the Geumgang River, and from the first half of the 6th century at the latest,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Geumgang River is confirmed. Since the first half of the 6th century, the number of Baekje earthenware managers in the Gaya tombs has been increasing in the Jangsu area, and although it is temporary, it is possible to estimate the advancement of Baekje. In the first half of the 5th century, stone tombs corresponding to the first half of the 5th century were investigated in the administrative-ri tombs of the Unbong Highlands, but there was no continuity, and later Stones-chamber tombs influenced by Baekje were identified in Yugok-ri and Durak-ri tombs. In the upper and lower reaches of the Seomjingang River, Namwon Saseok-ri and Chochon-ri tombs, horizontal Stones-chamber Tombs the late 5th century were identified. Among them, the

* Jeonju Cultural Heritage Institute

Chochon-ri tombs are the largest Baekje tombs identified in the Seomjingang River basin and are believed to have been contrasted in Baekje's provincial bases after the Woongjin period.

The ancient tombs of Silla were identified in Muju and Jinan areas north of the Geumgang water system and in the Unbong Plateau, the Namgang water system. The period when Silla earthenware flowed into the ancient tombs in the eastern part of Jeollabuk-do was in the first half of the 5th century, and it appeared through exchanges with local forces, not direct advancement of Silla. In the late 5th century, the Silla ancient tombs, including the Daedae-ri tombs, were contrasted, and the Jangsu area is believed to have been included in the Silla area after the late 6th century. Gaya and Silla earthenware were mixed and excavated from the Bongdae-ri tombs in the Unbong Highlands, the Namgang River system, and the full-scale construction of the Silla ancient tombs began only in the late 6th century. The stone chambers were built in Yugok-ri and Durak-ri, the central tombs of the Gaya forces, and the construction of the Gocheong was stopped after the second quarter of the 6th century, and it is possible to estimate the extinction of Gaya and the development of Baekje and Silla. In the Seomjingang River water system, the Silla tombs are located in Wolpyeong-ri, Namwon, which is divided into around the 7th century, and it is believed to be related to Silla's westward advance.

Key Words : Three Kingdoms, Tomb materials, Ancient tombs, Baekje, Silla, Gaya, Eastern part of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